

최근 일본문화의 국내침투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일본문화 침투는 '신식민주의' 시대의 도래가 아니냐'는 우려조차 낳고 있다. 특히 일본 종교의 국내 침투는 일본문

### 한국속의 일본불교

화 개방을 눈앞에 두고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민족의 정신과 문화의 정수인 종교마저 일본화 된다면 민족의 혼은 그 존립기반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불교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 20여 종파 신도 130만... 민족정신 허질러

## 현황

현재 국내에 유입된 일본 종교 가운데 불교계가 가장 강하다. 신도 1백만여명의 교세를 자랑하는 국제창가학회 한국불교회(SGI 한국불교회)를 비롯 입정교성회, 정토진종 등 법화·정토계통의 일본 불교계는 20여 종파 1백30만여명의 신도를 확보하고 있다.

그 다음은 56만여명의 신도를 보유한 천리교가 뒤를 잇고 있다. 이밖에 기독교 계열인 대한민국의교회세계교와 세계에시이고 한국본부, 일본 토착 신종교인 선린교 한국교구와 '생장의 집' 등은 아직 교세가 미약한 편이다.

현재 30여 종파에 달하는 왜색종교 신도는 최소한 2백여만명. 이들 가운데 일부는 친일상이 종교적 성격으로 승화돼 깊게 물입되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2~3년전부터 SGI한국불교회, 입정교성회 등 일본 불교는 국내에서 환경·시민운동에 동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련정종은 올해 초 조계종 총

일본 불교는 1910년 일제강점기이후에도 전통 수행위주의 한국불교에 대처승 장려 등 왜색화를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1945년 패전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신도(神道)나 불교 각종단 등 대부분의 종교교단이 되돌아 갔으나, 천리교 등은 토착세력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 불교의 각 교단이 일본 신종교와 함께 다시 전래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력한 일본 불교종파의 교세와 특징 등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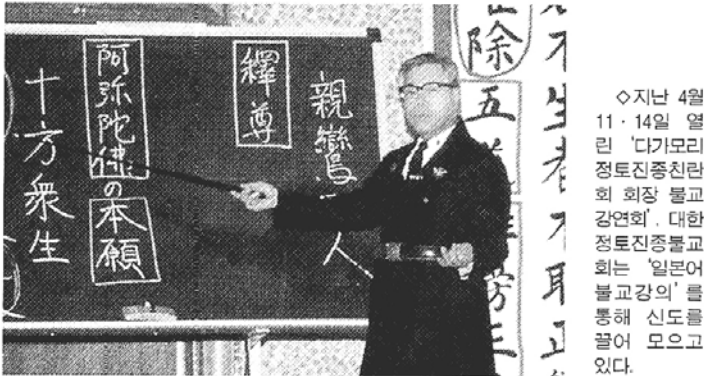
### 국제창가학회 한국불교회

국내 최대의 일본종교인 SGI(Soka Gakka International)한국불교회는 국민들에게 '남묘호렌게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교세는 전국 25개 지역의 신도 1백만여명, 연수센터 1곳, 월간잡지와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 3개, 문화공간 2백6곳 등이다.

교리는 <법화경>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일련의 각종 저술 등을 하나로 묶은 <서(御書)전집>과 초대회장 마키구치 스네부루와 2대회장 도다 조세이, 3대



일련정종의 대표적 종파인 연화산 대한사. 서울 관악구 통천동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포교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4월 11·14일 열린 '다기모리 정토진종친람회' 회장 불교강연회. 대한정토진종불교회는 '일본어 불교강의'를 통해 신도를 끌어 모으고 있다.

## 1965년 한일국교수립후 급속 확산 사회활동 활발 '신식민주의' 우려

SGI 한국불교회 25개 지역신도 1백만 교세 자랑

무원장을 예방하기도 했으며, 입정교성회는 지난 6월24일~7월3일 불교인권위원회와 함께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촉구하는 '생명과 평화의 제1차 한일 제종교인 국토순례'를 실시하고 한국불교 주요단체를 시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들 일본 불교는 언제부터 한국에 상륙한 것일까. 그것은 일제가 문화침투전략의 일환으로 문화적 이질감이 적은 불교를 적극 활용하면서 부터였다.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 정토진종 본원사의 별원을 부산에 설치하여 종교문화화 통한 조선침략을 획책하였다.

회장 이케다 다이사쿠의 저서와 교사가 실제적인 소의경전이다. 주요 수행방법으로는 '남묘법연화경'이라고 쓴 만다라인 '어존불'을 통째로 모시고 '남묘호렌게교'를 외운다. 이와 함께 좌담회와 공역담이라는 의식을 통해 체험단을 공유한다.

92년 창가학회가 일련정종으로부터 파문당하고 독자적인 종교법으로 일본에서 활동하게 되자 일련정종 계열은 여러 분파의 일련정종과 SGI한국불교회(1975년 한국일련정종불교회로 명명하며 독립)로 완전히 분리된다.

창가학회는 1253년 일본 나가사키 도 조지방의 고미나토에서 일련(日蓮)에 의해 창시된 일련정종에서부터 연원한다. 1930년 일련정종내 교육자 중심의 신도 모임인 창가교육회로 출발, 75년 이케다 다이사쿠 현회장에 의해 '국제창가학회'로 개명됐다. '공명당'이라는 정당까지 만들어 종교의 정치세력화를 성공시킨 이들은 1백28개국, 1천3백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 일련정종 중앙회

1991년 흥종회가 참고. 기관지 <정법>

을 강행했다. 조직 당시에는 SGI한국불교회에 대한, 일련정종의 각 사원 및 신도를 총괄하려는 협의체로 구성되었으나 각 사원의 이해관계가 얽혀 실질적인 활동은 자율에 맡기고 있다. 특히 동대문 일련정종(한국일련정종총본부), 일련정종 강동본부(대한정법일련정종법화불교회), 일련정종 대한사(연화산 대한사)가 소교단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본인이 이끄는 대한불교일련정종대법산광선사(대표 影山信雄, 신도 5천명)를 제외하면 SGI한국불교회 소속 이외의 일련정종계 사원을 망라하고 있다. 부산 일련정종 교려사가 20만여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등 18개 주요 종파에 25만여명의 교세를 보이고 있다.

### 재가불교 한국입정교성회

이복순 이사장이 1982년 3월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창교했다. 2개의 교당에 1만여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다. 입정교성회는 일본 일련법화계의 유력한 종단의 하나로서, 현재 명예회장이 성조(聖照)로 불리는 정아일경(庭野日敬)이 1938년 3월 5일 영우회(靈友會)에서 분립,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일본의

신도수는 5백65만명이 넘는다. 교리는 창교자 庭野의 독자적인 성명학(姓名學)·기학(氣學)적인 것과 진인 밀교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수행법은 법좌(法座)를 중시한다. 이는 7~8명에서 많게는 십수명이 한 조가 되어 지도자를 중심으로 법을 담론하는 것. 법좌는 교성회의 생명이므로 표현한다.

### 연화산 대한사

일본 일련종 종파대체인 입정(立正)대학을 졸업한 강호실이 1979년 4월 20일 서울 관악구 봉선4동 창립, 일련정종을 전교하다가 1989년 법인등록했다. 교리는 <법화경>을 말법주의의 부속을 받은 상행(上行)보살의 소지인 <법화경> 제목 즉 '남묘호렌게교'를 독송하여 적공부덕(積功累德)하는데 있다. 소의경전은 법화3부경.

교단조직은 지도교사 휘하에 운영위원장이 있고, 그 아래에 지방특별강 13개소가 있다. 월간잡지로 <화광(和光)>을 3천여부 발간하고 있다. 중점사업으로는 남골당·지방상설 전립, 승려 육성 등에 힘쓰고 있다. 포교·문화·사회사업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 "임란·일제 침략주의자들 신봉"

日 법화신앙 잘못지적 표각스님

국내 일본불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련정종계는 법화계열의 종단이다. 특히 소위 창가학회에서는 '남묘법연화경'을 일본음으로 '남묘호렌게교'로 불러야 공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그들의 도국(島國)근성에서 나온 꾀소적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그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일련대사와 비교하면서 자국의 대사는 말법(末法)시대의 본불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시효님은 감격이요, 작년달력이라고 한다. 일본의 잘못된 법화신앙은 역사적인 종의 현소(玄蘇)라는 승려와 가문청장이 '南無妙法蓮華經'이라는 것발을 앞세우고 우리나라에 쳐들어 온 것이다. 또 일제강점의 원흉 이토모 히로부미와 조선총독부의 미나미 총독, 그리고 마루마의 생체실험 장본인인 731부대장 등이 '남묘호렌게교'를 봉창하며 동양삼국의 평화를



짓밟은 장본인들이었다. <법화경>의 제목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즉 실상묘법연화경(實妙法蓮華經), 일승(一乘)묘법연화경, 대승(大乘)묘법연화경, 남묘묘법연화경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로 '실상묘법연화경'이라고 불리어 왔다. <석문의법>이나 고찰에 가보면 주런 등에 그렇게 적혀 있다. <국청사 주지>

## 왜색불교 확산 원인과 대책

日연수등 자금 공세 출세등 기복 강조

정부·범종단차원 규제방안 마련해야

SGI 한국불교회의 경우 일련대사를 석가모니 부처님과 동격인 교주로, 이케다를 비롯한 초대와 2대 회장을 종조로 삼는 비불교적인 교리를 갖고 있다. 국제창가학회가 이케다 회장을 생불(生佛)로 찬양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신종교에 나타나는 우상화의 징후를 보여주는 한 예다.

그들이 회관 동쪽벽에 걸고 어본존(御本尊)으로 섬기는 '남묘호렌게교 만다라'가장자리에는 여러 보살과 호법선신 등의 명호와 함께 천조대신(일본 개국신)과 팔면대보살(고대 한국을 침략했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 불자들이 일본 개국신과 수호신에게 낄마다 절을 하고 복을 비는 동방요배

나 다름없다. 이밖에 일본어 '제국 봉창'이라는 수행방법도 왜색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왜 이들 왜색불교에 경도되는 것일까.

이들 왜색불교들은 한국국민의 반일 감정을 감안, 공개적인 포교활동은 자제하고 있으나 일체의 포교자금도 승성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있다. 또한 학술연구세미나지원, 한국스님 및 신도 일본연수및 지원등도 최근에 이르러 급증하는 형태이다.

종교학자들은 "일본종교에 쉽게 빠지는 것은 그것이 무방장승과 출세 등 현세적인 기복신앙을 강조하면서 한국 불자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 때문"이라며 "현세의 부귀영화와 종교의 목적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전통불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불교들이 현재 벌이고 있는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막대한 우호적인 사고를 가질 경우 일본 국수주의 종교의 한국 지배라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불교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정부도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왜색문화 조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영구명명대화학

### 신입생모집

《정규과정, 통신과정》

개강: 9월 3일(목)  
9월 4일(금)

선착순 3,000명  
(학력·연령 제한없음)

- 기본 6개월 과정**  
불교 기본교리, 예불,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육조 단경 등도 공부할 수 있음.
- 저렴한 학비**  
· 3개월 동안 3만원  
(처음 3개월은 입학금 만원추가)  
· 교재비 무료  
(6개월 기본과정)-IMF
- 교수진**  
· 우학승(저거는 맨날 고기먹고와 장가 안가길 잘 했네의 저자)  
· 무비 큰스님, 박삼중 큰스님, 무진장 큰스님, 박완일 교수, 법산 큰스님, 보각 큰스님

※통신과정 '교재+테이프' 집에앉아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53)474-8228**

## 전강의 신비! 옥

春川 玉山家玉

# 玉

대교에서 무덤까지 玉을 깔고 산 한국인들

###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르고 옥판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귀를 기른 결과 솜승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고 그의 나머지는 37%~48.8%의 치료효과를 보였다. (북경중의원병임상 보고서)

**제품 목록: 옥의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 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테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아라 승패가 걸립니다.

玉山家 (02)777-0105 (백옥옥)

## 신비한 우주 에너지(빛) 발생장치, 명상용

### 수정 피라미트 히란야!

규격: 사방 2m 높이 1.3m

피라미트 모자

특허청 의장특허 등록 NO.204454  
'의료용 '氣' 발생기' 의장등록번호 NO.1822, 1823, 1824

- ◆ 피라미트 안에서 명상이나 취침시는 원인불명의 신체 정신적 증상과 두통 불면증이 해소되고 체질이 개선된다.
- ◆ 깨달음과 영적각성 및 초크라 개발을 촉진시키는 고차원의 빛 에너지에 대한 생성된다.
- ◆ 인체에 유해한 수맥을 차단하며 컴퓨터, TV 등 전자제품의 인체 유해전자파를 중화·소멸시킨다.

우주문명과 피라미트 히란야

문덕 출판사

한국 피라미트 히란야 체질개선 연구회  
부설 문덕출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5-1 보라B/D 303호  
TEL. 792-0960, 0966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사!
- 옥판·동판·인쇄 복사본 보다 생필인 진품이 영기의 영험이 더 있습니다.

정음으로 배우는 사경배울 실습, 시문자, 달마도, 용자그림, 전수자 수장생묘법. (통신도 가능)

사업실제,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상담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02)242-0331, 242-0255 (02)216-0307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敎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硏究會